

## 무용분야

- 일시 : 2014. 12. 5(금) 16:00~19: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 : 박성혜, 최해리, 오혜순, 박재홍, 최두혁

###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무용분과 지원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4개 유형 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59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927백만 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59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 2. 사업유형별 심의평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총 11건의 신청 사업이 접수되었고, 이 중 6건을 선정하였다. 비평 활동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대내외적인 관심 환기 여부를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월간지 춤, 춤과사람들, 월간 몸은 한국무용계에서 무용전문 월간지로서의 순기능을 인정하여 지속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올해 처음 신청한 월간 댄스포럼도 무용공연계의 리뷰 및 비평의 내용을 꾸준히 실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새롭게 지원을 결정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세미나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한국춤비평가협회 포럼'을 선정하였고, 한국춤평론가회에서 '조동화'선생님을 기리는 1주년 행사(세미나 및 책 발간)는 무용계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무용분야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33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1건을 선정하였다. 국제 무용 분야에서의 역할과 파급정도, 교류조건을 살펴 본 후, 우호적이면서도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교류되고 있는 사업인가를 검토하였다. 일례로 한국의 단체들의 일방적인 부담인 교류 사업은 배제 시켰다. 해당 단체나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실행가능성, 국내외의 파급효과까지 적극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매년 지원받는 예술가보다는 기대되는 신규 지원자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번 년에도 특정 분야에서만 지원이 집중되어 분야별 선정이 고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무용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은 총 4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건을 선정하였다. 실질적인 중장기 기획 프로젝트로의 적합한 성격과 내용을 띠고 있는지를 고려한 뒤 해당 사업에 부적합한 성격의 지원의 단체는 배제하였다. 장기 프로젝트로서의 내용의 현실성, 예술적 안목과 명확한 비전 제시가 심의의 주요 기준이 되었으며, 이러한 원칙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2016년 혹은 2017년 국제교류행사를 준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의 내용의 충실성과 예측되는 성과를 적극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무용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사업은 총 7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3건이 선정되었다. 지원사업 중 레지던스 성격이라고 보기에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것들과 단순 워크숍 진행이라고 보여지는 사업들은 해당 지원사업 내용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배제하였다. 그리고 레지던스 주최 측이 제시하는 조건과 지원자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밝히는 예술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문화예술 교류가 어려운 제 3세계 지역에서의 우호적 레지던스 프로젝트 역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